검사결과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

2. 조치일 : 2019. 8. 16.

3. 조치내용

조치대상	조치내용
기 관	경영유의 2건

4. 조치 대상 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 관리 강화

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런던지점*의 경우 외형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의 전담 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,

* ① 본점의 중장기 외화 영업전략에 따라 비한국계 신디케이트드론, 프로젝트 파이낸싱등 여신 취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② '14년 국외 거점점포로 선정된 이후 유럽·중동· 북아프리카(EMEA) 지역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영업 전략을 추진 중

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이 사실상 1명에 불과하여 특정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상호 검증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담당 인력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망됨

(2) 자금 조달운용 만기불일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

2018년 6월말 현재 CP 등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유가증권(채권) 및 대출로 자금을 운영함에 따라 자금 조달과 운용의 듀레이션 차이가 1.58년(운용 2.01년, 조달 0.43년)으로 '14년 1.4년에 비해 듀레이션갭이 확대되고 있어

자금 조달·운용의 장단기 미스매치에 따라 급작스런 금융위기상황 발생 및 조달시장 경색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단기차입금 비중 확대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차환·신규조달이 곤란할 수 있으며,

2017년말 기준 신용대출 비중이 90.4%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평균 신용대출 비중 50.4% 대비 높은 수준(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31.6% 수준)으로 신용대출은 부도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

조달구조 및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결과를 지점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비상자금 조달 방안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채권 발행, 본점 장기차입 확대 등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 규모 확대노력을 지속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